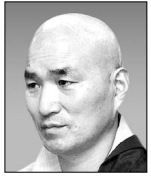


일주문



한국청소년학회 3대 이사장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최근 국제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05 (사)한국청소년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제3회 여름 시조대축제 개최 김경연 지지사 주지 성용 스님은 8월 13, 14일 민덕전 등에서 나라시조시인협회 (회장 오민필)와 함께 제3회 여름 시조대축제를 개최한다.(054)436-6174



보현불교대 수계법회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황인 스님은 7월 22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 금강계단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바다사랑 청소년가요제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7월 22일 오후 5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제6회 바다사랑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한다.(051)808-7111



대교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성남 성보사 주지 휴암 스님은 최근 대교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대교종 교무부장,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동국대박물관장에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정우택 교수는 6월 23일자로 신임 동국대 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정 관장의 임기는 2007년 2월까지.

“사경·절로 신심 다졌죠”

롯데호텔 장경작 신임사장 신행 ‘화제’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사진)의 취임 전 2년여 간 치열한 구도행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02년까지 웨스틴조선호텔을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호텔로 성장시키는 동안 장 사장은 <금강경> <천수경> <법화경>을 사경하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절 수행을 이어왔다. 사경한 경전을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다. 35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미련을 털어냈다.

2002년 웨스틴조선호텔을 퇴임한 이후에는 절 수행을 해왔다. 그런 그에게 올 2월에는 롯데호텔 경영이라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장 사장은 “사경과 절을 하면서 하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웠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을 갖고 노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학, 교리 중심에서 벗어나야”

첫 방한 도날드 로페즈 교수 서울대서 ‘서구 불교학 연구’ 강연

“불교학자들은 불교학 전통의 역사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 선택과 연구에 영향을 주는 전통들이 항상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버스웰 교수(미국 UCLA) 등과 함께 서구 불교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도날드 로페즈 교수(미국 미시간대·사진)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7월 15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한국학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로페즈 교수는 하루 앞선 14일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서구 불교학 연구: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로페즈 교수는 서구에서 불교가 학문으로 성립·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불교학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불교학의 발전 방향. 로페즈 교수는 “2차대전 이후 엘리트 학문 전통에 치중해 아비달마, 중관, 논리학적 전통이 주로 연구됐으며, 칸트·비트겐슈타인과 불교가 비교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데리다와 비교되기도 하고 있다”고 근래의 연구흐름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불교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로페즈 교수는 “기존 연구가 대개 교리나 철학 중심의 고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



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19~20세기 불교와 근대성의 만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불교공부 하는 까닭은? -대학생이던 70년대, 서구문명에 대한 회의와 함께 불교가 융성했다. 나 역시 불교에 흥미를 느끼며 심취했다. 처음에는 깨닫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에 머물고 말았다.

▲부르노프 등 유럽 불교의 초창기 학자와 저술을 평한다면? -지금 부르노프의 <인도불교사>를 번역하고 있다. 그 저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그가 살았던 집을 방문했는데, 8가지 문헌을 비교하며 책을 썼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를 오리엔탈리스트로 비판하는 견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참여불교에 대한 관심이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참여불교보다는 윤리학이 학계 주된 흐름이다. 30여 년 전에 중관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불교의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불자인가? 불자라면 서양적 가치관과 충돌이 크지 않은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만약 아니라고 말하면, 다만 직업으로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불교 전통이 결여된 서구에 살고 있는 내가 과연 불자다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78년 달라이라마를 만나 보살 서원을 하며, 하루 6번씩 기도하고 명상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실천이 쉽지 않았다. 1984년 다시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실천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석관이 붉은 빛을 내비치는 정도라면 유지하면, 언젠가 인연을 만나 활활 타올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것이 큰 위안이 됐다. 달리 생각하면 불자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9월 북관대첩비 반환, 민족 기상 되살려

한·일불교복지협 회장 초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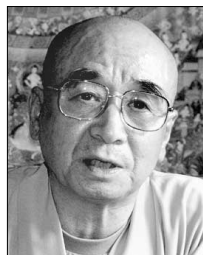
“9월경 가능한 북관대첩비 반환은 민족의 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 전국민적 차원에서 북관대첩비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초산 스님(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사진)은 ‘북관대첩비’ 반환이 단순한 문화재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제에 의해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민족의 기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1707년 함북 길주군 임명 고을에 세운 것으로, 러일전쟁 때 일제가 이를 약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왔다.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0년 4월. 일한불교복지협회 회장 가키누마 센신 스님이 초산 스님에게 북관대첩비의 존재를 알려주면서부터다.

“센신 스님이 자꾸 저에게 만나는 뜻을 전해왔습니



다. 무슨 일인가 해서 만났더니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관대첩비를 한국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스님은 이후 열차례 이상 일본을 드나들며 대첩비 반환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7월 8일에는 북한 당국이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반환 작업을 해달라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스님은 우선 7월말 일본을 방문해 반환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초산 스님은 “일본에는 북관대첩비 말고도 수 만점에 이르는 한국문화재들이 있다”며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j@buddhapia.com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사무총장에 지철 스님

7월 12일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 건립법인인 ‘한·스리랑카불교우호교류센터’ 추진위원 및 스리랑카 주재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철 스님(사진)은 복지마을 부지 매입과 건립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는 고아원 및 교육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했던 지철 스님은 “복지마을 건립 사업이 전 종도들의 의지를 모아 추진되는 만큼 어찌가 무급간 현지로 출발한다.”

유철주 기자

제20회 불이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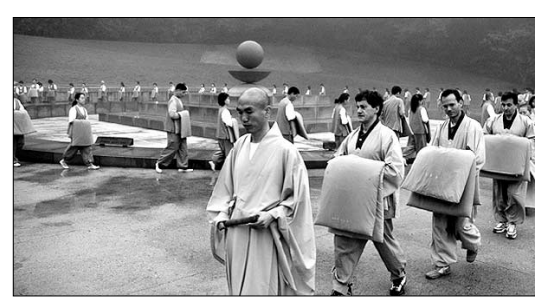
제20회 불이상 시상식이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최연승 교수(목포대)와 생령나눔실천본부(목포)가 각각 연구분야와 실천분야에서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상을 받았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불이상은 상금을 1000만원으로 늘렸고 수상 연령은 30대 후반 등 소장학자에 포커스를 맞췄다.

대구 화원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대구 화원교도소 재소자들 대상 수계법회가 7월 12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게스트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사서실장 재원, 사회국장 대범, 포교국장 일진 스님 등 교정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성 스님은 “무명에 가려서 인생고해를 해매게 됐지만 이제 부처님 법안에서 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농림부장관 해인사 템플스테이



이탈리아 농림부 조반니 알레만노 장관 등은 7월 11, 12일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일행은 11일 삼선암에서 진행된 좌선법회에 참석하고, 12일 참선주제 수련회, 새벽송길 걷기, 인경 체험 등을 했다. 만능 스포츠맨인 알레만노 장관은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국사 토진 스님 주지 진산식



서울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의 취임법회가 7월 13일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스님들과 국회의원 이기경, 최재성, 이계진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진 스님은 “도심 수행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들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O9001 ISO 9001(2000), HACCP인증 3위원 생산물 핵심원료보합 삼성화해삼보합추출물

심봤다!

제2의 산삼

심마니 토종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생요소준중 관리 기준 HACCP 인증

(주)현풍F&B 02)447-9114

HYUN PUNG F&B CO.LTD